

NH농협은행 전북본부, 도내 중기 유동성 부족 문제해결 위한

설 명절 특별자금 지원

신규자금 · 기한연장 각 5조원씩 내달 26일까지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장기요·사진)은 설 명절을 맞아 도내 중소기업의 유동성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설 명절 특별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자금은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농협은행 전국 지점을 통해 신규자금, 기한연장 각 5조원씩 총 10조 원 한도로 2월 26일까지 지원한다.

운전자금과 시설자금 모두를 포함하는 이번 자금은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설 명절자금 특별우대 금리 0.1%를 추가로 제공하는 등 대출상품에 따라 최고 1.5%의 우대 금리를 제공기로 했다.

장기요 본부장은 "이번차 설 명절 자금 특별지원을 통해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과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소상공인에게 적기에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를 바탕으로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가



설 명절 선물세트 설명 듣는 국민권익위원장 전현희(왼쪽) 국민권익위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하나마트 양재점에서 이성희(오른쪽) 농협중앙회장과 정연태 농협중앙회 대표이사에게 설 명절 한우선물세트 설명을 듣고 있다.

전북농협, AI 피해농가 조기 영농 복귀 위한

상호금융 영농우대 특별저리대출 실시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사진)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피해농가의 조기 영농 복귀를 위해 '상호금융 영농우대 특별저리대출'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상호금융 영농우대 특별저리대출은 AI 피해농가 조합원의 재입식 필요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상품으로, 2.0% 저금리에서 피해농가의 금융비용 절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출대상은 AI로 피해를 본 조합원이며, 대출한도는 1인당 5,000만원, 대출기간은 1년 이내다.

앞서 농협중앙회는 지난해 12월부터 피해농가에 가구당 최대 1000만

원을 긴급생활안정자금(1년·무이자)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기존 대출금의 만기를 연장하고 이자 납입을 유예하는 등 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정재호 본부장은 "AI 피해로 실의에 빠진 농가가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금융지원에 총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해외투자 도약 위해 국민연금, 조직 개편

해외증권실, 주식·채권실로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용진) 기금운용본부(본부장 김민진)는 국내외 투자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해외투자 확대 강화를 위해 기금운용본부 조직을 개편했다고 13일 밝혔다. 공단은 지난해에 마련된 '해외투자 종합계획'에 따라 해외증권 투자부문 조직인 해외증권실을 해외주식실과 해외채권실로 분리·확대했다.

이에 따라 기금운용본부는 기금운용본부장 아래 3부문·12실·1단·1팀·3회의사무소(총38팀·5부, 별임1참고)로 운영되고 있다.

기금운용본부는 해외투자 확대 전략을 반영한 조직 개편을 통해 해외주식에 대하여는 직접 운용 확대와 변화하는 시장에 대한 유연한 전략 수립 기반을 마련하고, 해외채권에 대해서는 해외채권 자산군의 투자비중 확대와 회사채 등과 같은 신용물 투자 확대를 대비하는 등 국내·외 투자환경 변화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공단은 대체투자에 대한 위험관리 강화를 위해 대체리스크관리팀을 사모투자자와 실물자산 분야로 분리·개편했다.

김용진 이사장은 "국민연금은 급변하는 국내외 금융투자 환경 속에서 기금적립금 1000조 원, 해외자산 500조 원 고지를 앞두고 있다"면서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기금의 대체투자는 물론 증권 부문에서의 해외투자 역량을 강화해 명실상부한 글로벌 연기금 전문 운용기관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중기 지원사업 온라인 설명회' 내달 3일까지

전북중기청, R&D·자금 등 7개 분야별 지원사업 안내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윤종욱, 이하 전북중기청)이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오는 18일부터 2월 3일까지 '2021년도 중소기업 지원사업 온라인 설명회'를 총 15회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책 설명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고려하고, 시간·장소의 제약으로 설명회 참석이 어려운 기업인들을 위해 접근성이 편리한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18일 창업·벤처 지원사업을 시작으로 2월 3일 기술보증 지원사업을 끝으로 막을 내리는 이번 설명회는 7개 분야를 2회씩 진행하고 관심도가 높은 정책자금 분야는 3회 실시하여 총 15회 진행될 예정이다.

진행은 전북중기청 유튜브 채널을 통해 분야별 지원사업 설명 영상을 시청 후 문의사항을 채팅으로 질의하면 전북중기청 및 중소기업 유관기관 담당자와 실시간 공개 상담을 진행하는 한편, 필요 시 비즈니스지원단 전문위원과 개별적으로 전화 상담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윤종욱 전북중기청장은 "올해 설명회는 접근이 편리한 유튜브를 활용하여 7개 분야의 지원사업을 심도 있게 전달하는 점이 특징이다. 필요한 부분만 골라 듣거나, 재시청도 가능하다"며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이 사업 안내와 실시간 상담을 통해 기업 맞춤형 지원사업을 찾아내어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지원사업 책자는 전북중기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온라인 설명회 일정, 참여 방법 등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사항은 전북중기청 조정협력과(063-210-6415)로 문의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

'한우 배합사료, 직접 만들면 경영비 절감에 도움'

소의 상황 따른 맞춤형 사료급여 가능... 농진청, 동영상 제작·보급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이 농식품 부산물을 활용해 섬유질배합사료(TMR)를 직접 만들 수 있도록 개발한 '한우 사료 배합비 프로그램'의 이용법을 동영상으로 제작, 보급한다.

이번 동영상은 컴퓨터 활용이 익숙하지 않아 프로그램 교육이나 전화 상담을 요청하는 농가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만든 교육용 동영상이다.

한우 사료 배합비 프로그램은 2013년 보급된 뒤 현재까지 총 내려받기(다운로드) 건수가 4만 건 이상에 달할 정도로 농가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한우의 영양소 요구량과 원료의 영양소 함량, 원료사료의 가격 등을 고려해 사료의

혼합비율을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농가에서 쉽게 섬유질배합사료를 만들 수 있다.

농가에서 직접 섬유질배합사료를 만들면 원료와 제조비용을 줄일 수 있고, 소의 상황에 따른 맞춤형 사료급여가 가능해 경영비를 절감하고 고품질 한우고기를 생산할 수 있다.

국립축산과학원이 섬유질배합사료 제조 기술을 도입한 농가를 대상으로 도입 전·후 3~5년간의 경영 분석을 실시한 결과, 사료비는 35.3% 줄었고, 일부플러스(1++)등급 출현율은 12.9%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영상에서는 프로그램 설치 방법, 사료 원료 선택, 배합비 작성 등 주요

사용법을 설명하고, 농가에서 주로 사용하는 원료로 실습할 수 있도록 예시도 실려 있다. 해당 영상은 농사로 누리집(www.nonsaro.go.kr)→농사백과→영농기술→영농활용정보→동영상정보)에서 '한우 자가 섬유질배합사료(TMR) 제조 길잡이'로 검색해 무료로 볼 수 있으며, 내려받기도 가능하다.

한편, 2021년도 상반기 한우 사료 배합비 프로그램 활용 교육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영상교육 비중을 높여 진행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영양생리팀 김상조 과장은 "올해 농가에서 한우 자가 섬유질배합사료 제조 기술을 도입한다면 경영비를 절감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코로나19 인한 고용시장 타격... 지난해 12월 도내 취업자 수 감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고용시장 타격으로 전북의 취업자 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호남통계청 전주사무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전북 지역 고용률은 59.1%로 전년 같은 달보다 0.3%포인트 하락했다.

취업자는 91만7,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1만명 감소했다.

성별로는 남자가 53만2,000명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2,000명(-0.4%), 여자가 38만6,000명으로 8,000명(-2.0%)이

각각 줄었다.

산업별 취업자는 전기·운수·통신·금융업이 4,000명(4.7%),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은 2,000명(0.6%), 도소매·숙박음식점업은 1,000명(0.6%)이 각각 증가했으나, 건설업은 8,000명(-9.6%), 광공업은 9,000명(-6.8%) 각각 감소했다.

실업률은 3.6%로 전년 동월보다 1.5%포인트 상승했고, 실업자는 3만4,000명으로 1만4,000명 늘었다.

/김윤상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